

충남도 경제 순풍, 태극제약과 MOU 체결

- 의약계 유망 중소기업 태극제약(주) 부여 초촌면에 투자확정



충남도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의 부여군 유치를 확정하고 지난 9월에 이어 2주 만에 충청남도·부여군·태극제약(주)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이창구 태극제약(주) 대표이사, 김무환 부여군수는 10월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일원에 신규 투자 및 도와 부여군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협의하고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태극제약(주)은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342-9번지 일원의 53,000㎡에 2014년까지 총 1,350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이전 및 신규투자 하기로 하였다.

태극제약(주)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08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9년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 부대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2009년부터 건강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고 2012년 의약품, 2013년 화장품 등 2014년까지 모든 생산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생산 초기에는 약

430억의 매출을 보이며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50억의 매출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MOU체결로 충남도에 향후 6년간 1,71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2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부여군과 함께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의 유치를 위해 꾸준한 설득과 협상으로 부여군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국민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을 우리도에 유치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한다”며 “「강한 충남, 1등 경제충남」을 이룩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환 부여군수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이 부여군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 태극제약(주)은 부여군 경제발전의 구심체 역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태극제약(주)의 사업 로드맵이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성과중심 조직운영으로 도정성과 극대화

- 성과관리(BSC), 불필요한 사업 배제, 책임경영제 등



충남도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 서만철 공주대 교수)에서 2008년 성과관리 중간점검 결과 8월 말 현재 1,874개 성과관리 지표 중 정상추진 1,723건, 지연처리가 15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실국장 책임경영제」 전실·국 확대 운영을 통한 도정의 생산성 향상 ▲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를 통해 충남의 인삼수출액 4,000만 불 달성 ▲도지사 해외 투자유치 순방 및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921백만 불 외자유치 MOU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10 대백제전 국제행사 승인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법 및 시행조례 제정 ▲안전충남 건설을 위한 소방관서 증설(1서 5센터 2구조대) ▲지역주민과 13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으로 청정해역을 이루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지연처리 사항은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체계 마련 부진(교육과학기술부 예산확보, 선정공고 등 사전절차 지연) ▲해외 수출 및 마케팅 활동 부진(쓰촨성 대지진 여파로 중국정부의 대외활동 축소 및 보류)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어려움(부동산 경기침체, 공동주택 준공 지연) 등 151건으로 주요원인은 중앙정부의 일정조정 등 외적요소, 중국 쓰촨성 지진 등의 불가항력적인 대외적인 원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된 사업의 연내 완수는 물론 중간 점검결과 여건변화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재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 출연기관(12개)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실국장 책임경영제(semi-CEO)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4기 전반기 도지사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에서는 전국 2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웹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생활공간개선 평가 최우수 등 총 39건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한 만큼 실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조직 내에 확실하게 하여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시켜 도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2009년도 균형발전 대상사업」 확정

-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22지구 842억 원 투자

충남도는 10월 14(화)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균형발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 총 22개 사업에 총 8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은 기 수립한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매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으로 확정하는 집행 계획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문화관광지 조성 등 10지구 541억 원(문화·관광분야) ▲금산군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3지구 77억 원(기반시설 확충분야) ▲금산군 인삼명품화 사업 등 8지구 170억 원(지역특화 분야) ▲청양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지구 54억 원(생산유통 분야) 등이다.

충남도는 천안, 아산, 당진 등 서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공주·보령·논산,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등 8개 시·군에 2012년까지 5개년 간 총 4,7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충청권 공조체제, 2010년 '지역 방문의 해' 유치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충남, 대전, 그리고 충북은 지난 10월 21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방문의 해' 사업의 공모심사 결과 2010년 공동 사업주체로 선정되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이번 공모심사에 'Visit Start! Vision 2010! - 충청관광의 세계적 브랜드 실현'이라는 주제로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을 신청하여 전라북도과 경상권(부산, 울산, 경남)을 제치고 최종사업자로 확정되었다.

충남은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 추진으로 '2010 대백제전' 국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의 IASP(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총회, 충북의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등의 국제행사와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여 지역 간 관광분야 시너지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문의 해를 통해 7개 문광부 선정축제의 명품화와 유류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서해안 관광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잠재해 있던 충남의 관광매력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산업을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과 충북은 지난해 말부터 독자적으로 방문의 해 사업 유치를 준비하였으나, 충청권 광역관광협력의 필요성 대두와 서울시의 공모참여에 대한 대안으로 충청권 공동유치가 추진되었다.

이완구 지사가 지난 5월 공동개최를 최초로 제안하였고 이에 8월에는 충청권 시·도지사가 공동유치 협약서를 체결하여 마침내 방문의 해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다.

앞으로 충청권 3개 시·도는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테마별 연계사업, 공동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되는데, 사업의 성공은 3개 시·도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 충북, 충남이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문화·정서 등에서 그 뿌리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공동사업추진은 광역관광발전을 위한 좋은 시도로 평가된다.

충남도, 마을별 e-고향카페 구축한다

- 2012년까지 도내 2,113 법정리 마을대상



충남도는 U-충남, U-농촌 구현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마을별 카페를 개설하여 마을 소식을 주민 및 출향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구축한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11월 4일 소회의실에서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문효은 부사장과 「e-충청남도 고향카페」 구축에 대한 공동 추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며, 도내

2,113 법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서버제공, 표준카페 개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충남도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운영자 교육과 다양한 이벤트 등 운영활성화를, 시·군에서는 마을별 카페구축 및 운영 지원,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e-충청남도 고향카페」가 활성화되면 정보화 소외지역인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간의 정보 격차가 해소되고 마을 카페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로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마을 특산품 홍보를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온라인으로 고향의 정서와 고향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 고향정보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된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고향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고, 고향의 변화된 모습과 발전된 모습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엠블렘 제작

- 공공디자인 홍보로 대외적 위상 제고와 민간부문에 확산 기대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엠블렘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지난 8월 문화적 가치가 가미된 통합적 도시계획과 경관조성 및 도시재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하면서 도정 전반에 걸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병품 충남을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내비쳤던 충청남도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엠블렘을 제작한 것이다.

이 엠블렘의 도안은 나뭇잎 모양과 「Renovate Chungnam」(재생충남)이라는 서체를 조합한 것으로서, 자연친화적이고 경쾌한 이미지인 녹색과 청색 계열의 나뭇잎 형상에 둘러싸인 도시공간이 자연의 품안에 안겨있는 아늑하고 쾌적한 충남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 공공디자인의 비전인 「Renovate Chungnam」을 다양한 서체 디자인을 사용하여 충남 공공디자인의 주제인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자연을 품다”와 비전인 “재생 충남”을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강한 의지로 담고 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각종 공공디자인 관련 행사 플랜카드와 안내 팸말, 분서, 인쇄물 등에 이 엠블렘을 삽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

업의 對 도민 홍보를 통하여 민간부분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설립,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며,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자문단 운영규정」 제정과 자문위원회(30명) 구성을 마치고 충청남도과 직속기관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창현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은 “공공디자인 엠블램을 전국 최초로 제작한 만큼 이를 적재적소에 적극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우리道 공공디자인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민간부분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해준다.

- 서해안유류피해 복구 자원봉사자, 도내 유료관광지 무료 또는 50~20%할인 혜택

충남도는 지난해 발생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입장권 구입시 2009. 12. 31까지 도내 주요관광지 무료·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꽃박람회 입장권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충남도내 주요시설은 독립기념관, 온양민속박물관, 천리포수목원과 안면도 오션캐슬 등 숙박시설을 포함한 40여개의 관람·숙박시설로 무료 또는 50~20%의 할인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서해안유류피해복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꽃박람회 입장료를 최대 50%이상 할인해 주며,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충남도청 도의 새마을과(042-251-2243)나, 서해안유류대책본부(041-673-8672)에서 자원봉사 인증표를 교부받으면 된다.

서해안유류피해복구 자원봉사자·유료입장권 소지자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꽃박람회 홈페이지(floritop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화력발전시설과 온실가스 감축 협약 체결

-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9,515억 원을 투자, CO₂배출원 5% 감축키로

충남도는 11월 28일(금)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부단체장, 기후변화정책자문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책 2008년 최종보고회」를 갖고 도내 화력발전업체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화력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령·태안·당진·서천화력 등 도내 4개 업체와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9,515억 원을 투자하여 CO₂배출원단위(전기 1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CO₂량)를 882g/kwh에서 832g/kwh로 5%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기·수도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구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2008년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적 활동의 원년임을 확인하고, 2009년도에는 학교·시민단체 등 각 참여주체가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인식공유와 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 '2008 태안 국제환경포럼' 개최

- 1년간의 복구 노력을 발판으로 국제적인 관심과 생태복원 및 지역발전방안 도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1년을 기념하는 '2008 태안 국제환경포럼'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충남 태안 안면 오션캐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공동주관으로 환경·생태·건강·방재분야 등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NGO,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며, 특히 사고 당시 파견되었던 유엔 및 국제 환경 전문가가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복구 노력과 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환경 복구와 국제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이번 포럼은 유류유출사고의 극복 과정과 130만 자원봉사의 승리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해양 유류오염사고 극복과 재인식 ▲생태·건강 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방안 ▲사회적 영향평가 및 자원봉사문화와 환경보전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발전 추진 전략 등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해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는 한국 해양오염 역사상 가장 큰 환경재앙이었다. 다행히 사고 직후 13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내·외 기관들의 협조로 서해안은 빠르게 평온을 되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제하며, "이번 포럼이 서해안 유류유출사고가 가져온 환경적·사회적 충격의 정도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생태계 복원과 지역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서해안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포럼기간 중 (재)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초청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며 세미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서해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지역사회의 복지 ▲해양오염사고와 지역사회와의 위협관리 등 3개 세션으로 구성·진행되었다.

충남도, 공중화장실 발전 전국 최우수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전국 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전국 공중화장실 발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기관 선정 배경으로 여성 및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문화가 살아있는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2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발전 시책』을 추진하여 전체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지난 4년간 지역특색과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137개소에 153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산재된 불결한 재래식 간이화장실 52개소에 대해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첨단 간이화장실로 교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010년까지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전용 화장실 조성률과 여성변기 비율을 남성대비 1.5배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수유시설, 파우더룸 등 각종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여성과 장애인전용 차량형 이동화장실을 금년도에 6개 시·군, 2009년에 5개 시·군, 2010년까지 나머지 4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